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중화 법타 대종사

“수행자는 윤리·지성·공동선 가치 지녀야”



중화 법타 대종사는… 1965년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추담 스님이 입적한 뒤 일타 스님에게 건당하여 법상자가 됐다. 1974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동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199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클레이튼 대학에서 ‘20세기 근세 북한불교에 관한 연구’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결성해 국수공장, 빵공장 등을 설립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한 남북교류에 매진해 왔다.
1998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문화유적복구협약을 맺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주도했으며, 북한 사찰 및 불교문화재 보존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불교신문 부사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동국대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201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데 이어 2021년 은해사 조실에 추대돼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9일 거조사(居祖寺)에는 꽃비가 내렸다. 부는 바람에 꽃잎들이 난분분 흩날리다가 마당에 내려앉았고, 마당에 쌓인 꽃잎들이 다시 바람에 몸을 맡기고 뒹굴었다. 거조사 마당에는 꽃잎으로 수놓은 만다라 문양(文樣)이 만들어졌다. 693년(효소왕 2) 원참조사가 창건한 거조사는 불조님(祖)이 주석하시는(居) 가람(寺)이어서 팔공산의 초목들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리라. 필자는 국보 14호로 지정된 정면 7칸, 측면 3칸의 주심포식(柱心包式) 맞배지붕으로 지어진 영산전(靈山殿)에 들어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뒤 석조나한상 526위를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표정을 한 석조나한상들은 불성(佛性)이 이 세상에 두루 편재(遍在)돼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거조사의 본전인 영산전은 출입문이 하나뿐이었다. 스님이든 신도든 관람객이든 차별 없이 드나드는 중앙의 문은 성속일여(聖俗一如)의 가르침을 말없이 설파하고 있었다.

영산전을 나오니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조실인 중화 법타(中和法陀) 대종사가 마당에 서서 반갑게 손을 흔드셨다. 스님은 필자를 다각실로 안내하더니 차를 내려 주었다.

“스님의 생신이 다가옵니다. 매년 생일이 되면 모든 중생의 축하를 받으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시점이니 봉축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법타 스님의 생일은 음력 4월 초파일, 즉, 부처님오신날이다. 스님이 맑게 웃은 뒤 입을 뗐다.

“부처님의 탄생게는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입니다. 이 탄생게에서 아(我)는 한 개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는 천부인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解脫)보다는 중생의 구제(救濟)를 중시해왔습니다. 불자라면 설령 자신의 해탈을 뒤로 미루더라도 남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자미득도선도타(自未得度先度他)’의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깨달음과 중생구제는 자전거 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월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타 스님은 총무부장 소임을 봤다. 당시 총무원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깨달음의 사회화’였다. 법타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에 대해 “파사현정(破邪顯正), 즉,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교의에 입각한 시대적 구호였다”고 덧붙였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근간입니다. 자비가 수반되지 않는 지혜나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자비는 결과적으로 공허한 울림만을 남길 것입니다.”

부처님 탄생게 ‘我’, 모든 생명 의미
‘상구보리 하화중생’ 사상이 기반돼
불자는 지혜와 자비 공히 섭수해야
평생 ‘하화중생’ 위한 실천활동 펼쳐

1992년 평불협 설립, 통일운동 전개
국보법 위반으로 안양구치소 수감도
“난 부처님만 찬양” 105일만에 석방
최근엔 北이탈주민 돕기운동 전개 중

법타 스님은 ‘바른 사회의 길’과 ‘바른 승가의 길’은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승가의 구성원은 종교인이라는 자부심, 지성인이라는 자부심,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먼저 종교인의 청정한 윤리, 지성인의 해박한 지식, 지도자의 공동선(共同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계종의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사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승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안으로는 화합을 통해 서로 존중해야 하고, 밖으로는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 신행문화는 사회변화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주5일제가 정착된 상황인데도 불교계는 아직도 음력 초하루 법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는 직장인들을 위해 휴일에 법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들은 대부분 풍광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산사는 직장인들이 휴일을 맞아 마음의 휴식처로 찾기 좋은 곳입니다.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직장인들이 산사를 찾았다가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생일이 부처님오신날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법타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연(佛緣)이 깊었다. 탁발승이 집에 찾아와서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을 보고서 스님은 처음으로 출가의 원력을 세우게 됐다. 중학생이 된 뒤에는 인근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법주사 주지 추담(秋潭) 스님을 찾아가 “출가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추담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오라”고 답했다.

법타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추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추담 스님은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다 투옥됐고, 해방 이후에는 불교정화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했다. 법타 스님은 추담 스님으로부터 애국(愛國)·애족(愛族)·애민(愛民)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애국·애족·애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타 스님은 (사)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해 30여 년 동안 이끌어왔다. 법타 스님은 평불협을 창립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85년 미국 남가주(南加州) 대학에 입학한 뒤 저는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단체인 ‘ONE KOREA MOVEMENT’에 가입했습니다. 불교를 대표해 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던 것입니다. 1989년 6월 25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북한에 입국해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북한불교의 실상을 접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저를 ‘중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호칭이 스님으로 바뀌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월주 스님을 좌장(座長)으로 모시고 1992년 조국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한 뒤 ‘조국 통일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불교와 주체사상’이라는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 논문 초고를 자료집에 실었는데 그게 옥고를 치르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로 급락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시 정부는 북풍 정치공작의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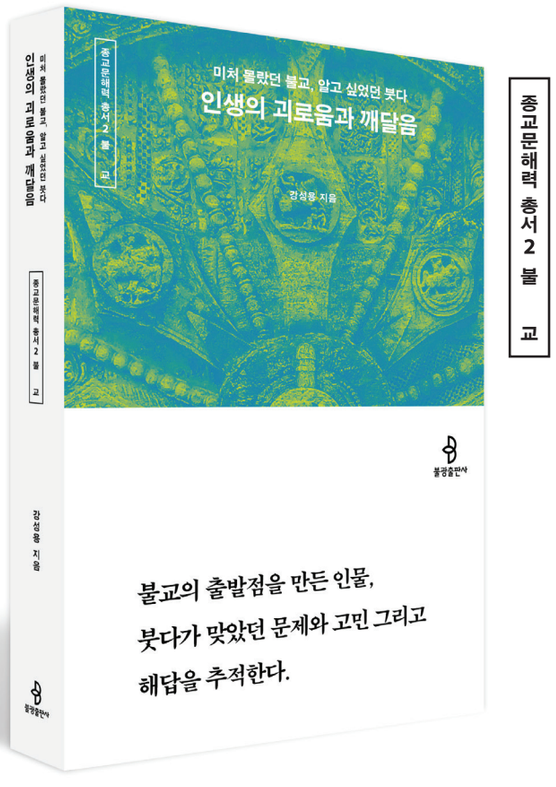
종교문해력 총서

“고생해서 고생이 사라지면 고생이 없겠네!”

까르마·사성제·팔정도·12연기·윤회의 색다른 해석
당신이 이제껏 믿어온 ‘불교’를 신박하게 뒤집다!

‘고생뿐인 인생에서 어떻게 고생을 없앨까?’라는 붓다의 2,500여 년 전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같다. ‘인생은 고생’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풀고 싶다면 이 책은 해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02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강성용 지음 | 344쪽 | 20,000원



종교가 어려운 현대인을 위한
종교 감수성 입문서
‘다름과 공감하는 시선’
종교문해력 총서

01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성해영 지음 | 272쪽 | 18,000원
03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정경일 지음 | 272쪽 | 18,000원
04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박현도 지음 | 392쪽 | 22,000원
05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장진영 지음 | 33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